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주님의 평강이 온 교우님들과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 입니다. 의미있는 주일 예배 인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빠름을 느낌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 한해 우리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들에게 기쁨도 가져다 주고 보람도 느끼게 했지만은,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힘들게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해였지만,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16-18절의 말씀 -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 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대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 지역 입니다. 그리고, 시도 바울은, 이 편지를 서기 51년이나 52년 쯤 고린도에서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시작은 유대인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성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마찮가지로, 굉장한 시련과 박해와 여려움을 격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씀 입니다. 삶의 환난 –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드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그들의 삶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위에 굳건히 서서 죽기까지 복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가 4장 9-10절의 말씀을 보며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P. 2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너희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푼 –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그 외 사람들에게 까지도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도음을 주었던 – 사랑이 넘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 이것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히며, 범사에, 모든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때, 금년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들은 정말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부는 그 어느것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백신들이 곧나온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게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 Pandemic이 끝이 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에는,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몇주 전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장로님과 통화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맨하탄에서 무역업을 하고 계신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는 조건이나 여유가 하나도 없는 –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무실 rent비, 직원들 월급, 운송비, 모게지등 참 힘이 든다는 그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것을 느낄수 있었고, 무엇인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 하루에 몇번씩은, 하던 일을 멈추고, 큰 쉼을 5번 정도 쉬면서 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일주일 쯤 후에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드리면서, 장로님이 마음에 걸려서 연락을 드리려고 하던 참이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전주 보다는 훨씬 밝은 음성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다음과 같은 간증읗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요새 로마서를 읽고 계신데, 몇일 전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시면서, 큰 은혜를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P. 3

여러번 읽었던 성경 말씀이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은 다시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지금 이 사업을 36년째 하고 계신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셨습니다. 정말 사업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몇번 있었는데, 그 때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도 주어졌고, 이제까지 사업을 할수 있게 된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닳게 된 것 입니다. 지금 장로님의 경제적인 상황은 바뀌어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 입니

다.

이러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일들이 협력해서 우리들에게 선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나, 항상 기뻐할수 있고 주님께 감사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God mak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일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할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아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또 꼭 해야 될 필수 사항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수 있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골로새서 2장 6-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 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말씀은 나의 생각과 생활과 목표의 근거를 – base를 예수님께 둔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수 있을 때, 우리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마음적인 여유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은, 인간의 욕심과 불평과 볼안과 삶의 짜증까지도 초월하며 살아 갈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며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P. 4

그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귀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 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그러한 음성을 들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 어려움과 핍박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입니다.

얼마전에 한 목사님이 쓴 다음과 같은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인데, 그 글중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쳐다보는 불만보다 내려보는 자비를 주소서.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경쟁심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혜아리게 하소서

끝없는 욕망의 우물을 파며 인생을 마치지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머니를 채우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충민한 주머니를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둘보다 더 값진 생애가 있겠습니까

붉게 피었다 조용히 지는 단풍입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조용히 감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은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